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1년도 표어 ⊕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어버이주일 메시지

순종과 공경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엘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드디어 그의 유해가 미국 뉴욕에 도착하던 날, 뉴욕시가 생긴 이래 최대의 인파가 부두에 몰려들었습니다. 군악대의 연주와 예포 소리가 울려 퍼졌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한 가운데 이 사람의 유해를 실은 군함이 입항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주인공이 유명한 정치가도, 위대한 예술가도, 위대한 군인도 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평범한 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전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작사한 단 한 곡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미국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음속에 깊은 메시지를 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꽃피고 새 우는 집, 내 집뿐이리.” “Home, home, sweet home”의 작사자인 존 하워드 페인(John Howard Payne)의 유해가 뉴욕에 입항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가정은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좋은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정 반대인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해 보면 너무도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우리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님들을 향한 우리들의 사명, 즉 순종과 공경을 기억합시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전화도 드리고, 모시고 나가 식사도 대접해 드리고, 용돈도 드립시다. 혹시 먼저 천국 가셨다면 그분들의 수고와 희생을 깊이 마음속으로 감사합시다.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감사는 더욱 깊어지고 여전히 남아 있는 상처의 관계가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 박노철

오늘은 어버이 주일

주일예배 시작 전 - 카네이션 달아드리려 찬양예배 시간에 장한 어머니 시상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교회학교 학생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부모님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1부 예배 시간 - 중등부, 2부 예배 시간 - 고등부, 3부 예배 시간 - 대학부에서 달아드리며 이 꽃은 호산나 대학 학생들이 2개월여에 걸쳐서 정성껏 만든 것이다.

또한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장한 어머니 상을 시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우리교회는 국가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책으로 수년 전 부터 자녀를 셋 낳는 가정의 어머니를 장한 어머니로 선정하고, 셋째 아이의 20년 후에 찾는 장기 장학금 통장을 시상한다.

올 해 장한 어머니는 다음과 같다.

- 1교구 오선혜 집사(정철웅 집사)-3자녀 정예흔,정우형,정우성(10.3.17)
- 9교구 정수는 집사(심근섭 집사)-3자녀 심설아,심주하,심재호(10.6.7)
- 11교구 전해인 성도(방성국 성도)-3자녀 방현우,방현담,방현경(10.4.12)
- 12교구 남재은 성도(임대중 집사)-3자녀 임하린,임하람,임하울(10.11.19)
- 교역자 김안성 목사(유문건 목사)-3자녀 유주영,유주아,유주희(10.9.6)

2011 홍해작전

6월6일(월)-25일(토) : 20일간 / 매일 새벽 5시 본당에서

2011년 홍해작전이 "다음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를 주제로 6월6일(월)부터 25일(토)까지 새벽5시 우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홍해작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를 기도로 극복한 모세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조국의 평화, 한국교회와 서울교회의 비전, 개인과

가정의 기도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말씀과 기도 운동"이다.

모든 성도들은 이웃과 더불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은혜받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제39학기 목회자 세미나 종강

"다음세대와 함께하는 설교와 그 준비"를 주제로 3월7일(월)부터 5월9일(월)까지 진행되는 10주간의 학사일정이 내일 5월9일(월)에 끝난다. 이번 학기를 통하여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은 4학기를 수료하는 회원 22명을 배출하게 된다.

다음은 4학기 수료자 명단이다.
강석만 고경자 김경현 김선호 김숙자 김정식 김지균 김효수 마영래 박명순 박옥순 박정숙 변베드로 성광현 윤운식 이강수 임정희 장승훈 정한영 최상영 최인주 한계문

육군사관학교 세례식 · 성찬식

5월11일(수) 오후7시 - 육사교회

우리교회가 주관하는 육군사관학교 세례식 · 성찬식이 5월 11일(수) 오후7시 육사교회에서 열린다. 65명의 생도들에게 베푸는 이날 세례식 · 성찬식에는 총 450명이 참석하며 박노철 목사가 설교와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집례한다. 졸업과 함께 입관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맡게될 이들이 먼



저 복음으로 무장되면 이들과 함께 진중에서 생활할 군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될 것이다.

참여하는 성도들은 이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여 세례 받는 이들이 말씀 안에 거하며 거듭난 자의 삶을 살도록 기도한다. 이날 세례식을 위하여 교회에서 오후 4시 30분에 출발한다.

제5회 서울교회, 동산교회(청주), 한빛교회(청주) 친선 족구대회

5월21일(토) 오전9시~오후1시, 미도공원

서울교회 전도위원회 산하 족구선교회는 5월21일(토)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미도공원에서 동산교회(이성득 목사), 한빛교회(이용식 목사)와 친선 족구대회를 갖는다. 또한 선교에 힘쓰고 있는 족구선교회에서는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족구를 사랑하는 남성도들 누구나 환영하며 매주 토요일 오전 시간에 모임을 갖는다.

문의는 김광태 집사(011-268-1000), 장창수 집사(010-3796-1193)에게 연락바란다.

목사님, 궁금해요!

순례자는 오늘부터 매 주 성경난해구절을 연재한다. 이종윤 원로 목사의 성경난해구절은 간간 기독교연합신문과 장로회 신문을 통해 기독교인들의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편집자 주)

(문1) 구약의 5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을 모세가 기록했는지요?

(답) : 예수님은 토라(율법)의 저자가 모세였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요 5:46)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요 7:19) 이처럼 주님은 모세의 저작권을 인정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신명기 18:15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말하되라고 했으며(행 3:22) 바울도 레위기 18:5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기록하되라고 했습니다.(롬 10:5)

이처럼 모세의 저작설에 대한 성경 자체의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출 17:14), "모세가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출 24:4)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출 24:7) 그리고 출 34:27, 민 33:1-2, 신 31:9 등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하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수 1:8) 고 했습니다.

오경을 모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비평주의자들은 위에 언급한 성경내용 특히 예수님의 무지를 들어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이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예발 산에 한 제단을 쌓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모세가 한 대로 함이라"(수 8:30-35) 오경에 대한 구약의 증언 중엔 열왕기상 2:3, 왕하 14:6, 21:8, 에스라 6:18, 느헤미야 13:1, 다니엘 9:11-13, 말라기 4:4 등이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적 정치적 조건들이나 기후나 지리적 정보들이 이 책들의 저자나 독자는 본래 애굽에서 살았던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에 관하여도 조상들로부터 구전(口傳)으로 들어 안 사람이 아니고 직접 그리고 충분한 지식을 가진 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은 비평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주전 9세기에 시작하여 주전 445년 학사 에스라가 장막절에 읽은 율법 책까지 긴 세월동안 익명의 여러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주일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살아오신 아버지

이신애 권사 (14교구)



어느 날 친정에서 아버지의 낡고 헤어진 성경책을 보았습니다. 그 낡은 성경책만큼, 나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어릴 적에는 마냥 어렵고 무섭게만 느껴졌던 아버지가 더 이상 무섭지 않고 따뜻한 분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위해 기도 드린 아버지...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예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지금도 매일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지난 시간동안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이어졌을 아버지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힘들 때마다 항상 웃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심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용선 장로님과 박순봉권사님

여든이 넘으신 나이에도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니시며 함께 은빛 찬양대에서 봉사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 저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차고 넘칩니다.

가족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아버지, 평생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살아오신 아버지의 삶!

그런 아버지의 삶을 닮아 가기에는 저는 너무나도 작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품은 소망은 이 부족하고 나약한 저도 아버지처럼 아이들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믿음을 물려주신 아버지. 늘 건강하시고 아버지의 기도가 모두 응답받으실 수 있기를 사랑하는 막내딸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라의 격동기인 일제강점기, 해방, 6.25전쟁 등으로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이젠 세계 정상에 견줄 만큼 부강한 나라가 된 대한민국. 그러한 시기를 몸소 겪으며 살아오신 나의 어머니!

평북선천에서 서울로 내려와 교회에 발을 단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답니다.

2남 4녀를 둔 어머니는 그 어려운 세월을 보내시면서 어찌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그럴 때마다 교회 가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 하셨던 모습. 가제수건이 더 이상 닦을 때가 없을 만큼 흘렸던 그 눈물, 콧물. 어릴 때 엄마 따라 교회에 가 딱딱한 장의자에 누워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엄마 가자" "엄마 그만해"하며 보았던 눈물, 콧물. 얼마나 지저분하고 싫었던지!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그 흘린 눈물이 얼마나 큰 힘이었고 위로였고 지탱해 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고 기쁨 이었는지!

어머니는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주님 앞에서 든든히 설수 있게 하셨고 그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뿐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게 저 멀리 터키 땅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고 딸까지 내어주신 나의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귀한 어머니!



세상엔 재미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기에 세상의 유희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섬기고 살기엔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이야기를 하던 어머니는 늘 편안하게 다 들어주셨고 지혜롭게 상담도 잘 해주시면서 말씀과 기도를 빼놓지 않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처럼 기도해야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나는 늘 부족할 뿐, 그래서 아직도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하고 든든한 후원자로 오래도록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진 것처럼 어머니의 자손들도 예수님 잘 믿는 풍성함을 누리는 영적 부자의 계대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90세가 되셨음에도 한 시간 거리의 교회를 혼자 오시는 건강은 분명 기도와 말씀을 붙드셨기에 가능한 거라 믿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며 경험했던 간증들을 다 기록하셨다 하셨죠!? 그걸 책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주님 앞에 가실 때 까지 아프지 마시고 식사도 잘 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예수님의 사랑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나의 어머니!

아주 많이 사랑 합니다.♡

아버지주일

고마우신 할머니

박예진 (초등부)

할머니 제 어릴적 기억나시나요?

5년전 한티공원에서 놀다 서울교회를 보고 저기 있는 교회가 내 교회라고 말해서 이모 할머니들이 웃으셨잖아요. 그래서 전 그 후부터 할머니와 저는 서울교회를 다닌거 같아요. 전 아직도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할머니 우리는 교회를 참 잘 골랐어요. 목사님들과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분이 훌륭하시고 참 친절하세요.

할머니, 저 요즘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그건 밥먹기 전 · 후에 기도하는 것과 성경책



을 많이 못읽기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경책도 많이 읽으시니까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께 감사드려요. 엄마가 직장을 다니셔서 절 길러주셨잖아요. 전 할머니와 엄마가 좋아하는 등수에서 똑같아요. 저를 아주 지극정성히 길러주셨잖아요. 고마운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저를 부르는 별명(귀염둥이, 강아지 등)이 있잖아요. 전 그 별명이 다정해서 좋아요.

할머니, 앞으로 예수님 열심히 섬길게요. 할머니 사랑해요~♡

아버지주일

가장 귀하고 값진 유산을 물려주신 나의 어머니



전광환집사 (3교구)

유럽선교사 파리대회

"옵소서 목사" 파리에 온다!

이종윤 원로목사는 지난 4월26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 근교에 있는 Le Bois du Lys 수양관에서 유럽 17개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55가정 총120명이 모인 유럽선교사 파리대회의 강사로 다녀왔다.



2008년 김치세미나에서 프랑스 목회자들

2008년도 김치신학세미나에 참석했던 동문들은 이종윤 목사의 은퇴를 즈음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의 시간을 가지며 그들이 이 목사를 통해 얼마나 큰 도전과 용기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크게 감사했다.

멀리 리옹에서 오신 올리비에 리옹 두발 목사는

칼빈에 관한 글 모음집을 선물했고, 올리앙스에서 오신 기욤 드 끌레르몽 목사는 칼빈상을 조각한 선물을 한국의 칼빈에게 드린다고 했다. 이들은 이 목사가 파리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로 알릴 때 "옵소서 목사 파리에 온다"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에 띄웠다.

김치세미나 새벽기도회 시 이 목사의 기도에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시 옵소서가 귀에 들렸기 때문에 기도시간엔 **옵소서** 라고 해야 하는 줄

을 듣고 편지로 알릴 때 "옵소서 목사 파리에 온다"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에 띄웠다. 김치세미나 새벽기도회 시 이 목사의 기도에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시 옵소서가 귀에 들렸기 때문에 기도시간엔 **옵소서** 라고 해야 하는 줄

알고 잠자던 프랑스 교계에 옵소서 운동을 일으킨다고 했다.

프랑스 개혁교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총회와 협력교회 체제를 맺고 오는 6월초에 조인식을 갖는다. 세계개혁신학의 아버지가 된 요한 칼빈을 낳은 프랑스교회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의 뿌리가 됨으로 한국교회는 협력 관계를 갖는 것이 마땅하므로 2008년에 프랑스를 방문한 이종윤 목사의 제안으로 김치세미나를 거쳐 오랜 협의 끝에 오늘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편집부)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부장:김성준 집사의 연주로 드린다. 송재월 집사의 지휘로 "갈보리산 위에(G. Bennard)"등 4곡을 19명의 대원이 연주하며 윤주일 성도의 타악기 협연도 있다.

송재월 집사는 경성대학교 침례신학대학에서 강의하며 핸드벨콰이어 지휘자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윤주일 성도는 가브리엘 찬양대 팀파니스트이며 타악기 주자로 여러 오케스트라에서 폭넓은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동정

■ 이종윤원로목사는 5월11일(수) 한국로전위원회 월례회에 참석한다. 14일(토) CTS 스포셜좌담회 '한국교회 변화가 필요하다' 대담프로 출연특화 참석한다.

■ 주간식당봉사: 제1스테반회(5.8) 제2스테반회(5.15)

■ 금주의 식사 : 교회제공

의료인의 밤을 마치고

의료선교의 큰 발걸음

노제현 집사 (의료선교회 회장)



서울교회의 위상에 비해 활동이 다소 미진했던 의료선교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월례회에서 '의료선교의 밤'을 해보

자고 결의하였고, 준비과정에서 너무 선교를 강조하는 것이 모든 의료인 성도들의 정서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의료인의 밤'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3월부터는 매주일 임원들이 만나 기도하였고, 해야 할 일을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알려지지 않은 의료인 성도들을 파악하다 보니 우리교회에 의외로 의료인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표할 내용을 위해 여기저기서 자료들을 모집하고, 강사를 선정하고, 초청장을 보내었습니다.

행사 당일 많은 비가 내리 지방에서 개업하고 있는 몇몇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여 못내 아쉬웠지만, 박노철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서 격려하여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청장도 전화도 받지 못하신 여러분들이 주보와 순례자의 광고를 보시고 자발적으로 참석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 이 분들을 보며 의료 선교회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샘솟듯 생겼습니다.

'의료인의 밤'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의료인들은 그 날 결의한대로 주일 의료 상담을 더욱 내실화 하고 여름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주말에 이주 노동자와 의료소외계층의 진료봉사 활동을 차근차근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모이기에 힘쓰는 의료 선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박노철 목사님의 말씀처럼 '감동을 주는' 의료 선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섬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해주신 임원들과 당일 도와주신 대학부 학생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여 효도하는 모든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2. 이종윤 원로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더욱 강건하시며 행복하실 수 있도록
3. 육군사관학교 세례식 및 성찬식을 통해 비전2020이 힘 있게 전진하도록
4. 대통령과 새로 임명된 장관들, 또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리더십의 지혜를 더 하시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5시	
영 어 예배	주 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 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